

61 광주광역시 61주년 기념사업
MILLET 공동주최
 MOUNTAIN BY EXPERIENCE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

〈8〉 합천 가야산

▲ 가야산 국립공원 산행 코스



지난 25일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한국 명산' 산행에 참가한 여성 등산객들이 가야산을 오르며 얼음꽃이 핀 소나무를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가야산은 소머리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 우두산(牛頭山)이라고도 불리며, 주봉은 상왕봉(우두봉·1430m)이다.

동화 같은 겨울 숲속 눈꽃 즐기며 호연지기 한껏

서성재 ~ 상왕봉까지 은빛 세상

눈 쌓인 산·바위 한쪽의 동양화

1200명 모두 함께 동심의 "야호"

계사년 새해를 맞아 '(주)밀레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첫 산행지는 가야산(1430m) 국립공원이다.

지난해 5월 계룡산에서 첫발을 내디딘 한국명산 산행은 해를 넘겨 9회째를 맞았다. 청송 주왕산, 부안 내변산, 충북 민주지산(삼도봉), 정읍 내장산, 무주 덕유산, 장흥 천관산으로 이어지며 한국명산 산행 참가자가 당초 340여명에서 최근 1200여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광주, 전남·북 지역 등산 애호가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8회째인 지난달 남해 금산 산행의 경우 폭설로 행사 자체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으로 발길을 돌려 눈꽃산행을 만끽했다.

◇우리나라 제일의 지덕(智德) 갖춘 가야산=가야산은 경남 합천군과 거창군, 경북 성주군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 1972년 9번째 국립공원(면적 76.256km)으로 지정됐다. 3대 사찰로 꼽히는 해인사를 비롯한 명승고적과 상왕봉, 칠불봉, 만물상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예로부터 '산형은 천하에 필승하고, 지덕은 해동(海東)에서 제일'이라고 일컬어져 왔다고 한다.

지난 25일 광주를 비롯해 영광,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지에서 이른 아침 출발해 오전 10시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 집결한 1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엄홍길 대장의 "가야산의 기(氣)를 받아 일취월장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는 환한 당부와 함께 산행을 시작했다.

이번 산행은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서성재~칠불봉~상왕봉(4.3km)을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왕복 5시간여가 소요된다.

출발한지 20여 분이 지난 백운 2교 부근부터는 등산로가 얼어붙어 아이젠을 착용해야 했다. 1시간여를 올라 도착한 서성재는 상왕봉과 만물상 코스가 나뉘는 지점.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은 후 상왕봉까지는 1.4km를 더 가야한다.

산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달라지는 가야산의 풍경은 등산객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숲이 얼어붙은 소나무를 보며 '수정(유리) 소나무'라고 표현하며 연신 탄성을 터뜨렸다. 또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한결같이 남쪽방향으로 달라붙은 얼음모양이 절묘하다. 조택윤(64·광주 문흥동)씨는 "북쪽에서 뒤편이 몰아쳐 반대쪽에 얼음이 붙으며 계속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쪽 동양화 같은 겨울 눈꽃산행 만끽=칠불봉 밑 계단을 오르며 올려다보는 진청색 하늘빛과 얼음이 달라붙어 하얗게 빛나는 소나무는 겨울 산의 절경을 연출했다. 세찬 바람이 몰아치며 얼음 가지가 부딪히며 상그리아 같은 소리를 내 신기했다.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산들은 스케일이 웅장하지만 단순하다. 우리나라 겨울 산들은 소나무와 바위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다"고 말했다.

산행객들과 함께 상왕봉으로 오르는 엄홍길 대장의 배낭에는 하얀 수술모양의 '가다'가 매달려 있었다. 가다는 셀과족들이 귀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주는 행운의 선물이다.

3시간여만에 당도한 상왕봉(우두봉)에서 산행객들은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 속에도 기념사진을 찍으며 겨울산행을 즐겼다. 시야가 특이한 상왕봉에서 멀리 덕유산과 지리산 산줄기가 보여 이채로웠다.

밀레 산행에 4번 참가했다는 김현숙(광주 침단동)씨는 30이 되는 딸과 함께 정상에 올랐다. 모녀는 산행도중 '경쟁사이다. 다른 이들이 앞질러 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기성세대의 등산론과 '등산은 혼자서 묵묵히 가는 것'이라는 신세대의 등산론을 주고받으며 즐겁고 힘들지만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만한 둘만의 추억을 만들었다.

엄 대장은 정상에 선 우두봉비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명상에 잠겼다.

엄 대장은 "등반도중 희생한 악우(岳友)들과 인연을 맺었던 셀과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가야산 산신령께 이들의 영혼을 걸어달라고 빌었다"고 말했다.

또한 "엄홍길 휴먼재단이 네팔 빈곤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4번째 '휴먼스쿨'이 2월 19일 안나푸르나 입구인 비레탄티에 완공된다. 5번째 '휴먼스쿨'이 지난달 시작됐고, 6·7번 학교가 3월과 10월에 각각 착공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엄 대장은 히말라야 오지에 16개의 학교(휴먼스쿨)를 건립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힘내"
 "당신이 좋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진실은 만나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9차 가야산 산행에 참가한 광주, 전남·북 지역 등산 애호가들. 첫 산행때는 340여명으로 시작했으나 회를 거듭하며 1200여명으로 참가자들이 늘었다.